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FAKE ACCOUNTS
가제 : 페이크
저자 : Lauren Oyler
출판사: Fourth Estate
발행일: 2021년 1월 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The New Yorker, New York Times, The Guardian 칼럼니스트 Lauren Oyle 의 매력 있는 신작
* "인터넷 공간에서 자행되는 스스로의 신화를 조작하는 행위에 관한 흡입력 있는 탐구, 21 세기 식 코미디" – 『Nobody is Ever Missing and The Answers』의 저자 캐서린 레이시
*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한 현대 소설. 트위터 이용자이든 일반 독자이든 당신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 『Indecision and Utopia or Bust: A Guide to the Present Crisis』의 저, 벤자민 쿤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 45 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던 시각, 이 책의 주인공 역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환경재앙, 핵전쟁, 가부장제, 미국의 양당 체제, 백인 우월주의, 데이터 유출 사건과 소셜미디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장 세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더 나은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허무감에 되려 위로를 얻기도 했고 한편으론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부쩍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대체 자기 몰래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염탐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그녀는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만 사귀었다. 하지만 지적인 남자든 섹시한 남자든 그녀에겐 상처만 주는 나쁜 남자들일 뿐이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남자친구인 펠릭스 같은 무던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교제하는 지난 1 년 반이란 긴 시간 동안 펠릭스는 좀처럼 그의 간절한 희망, 어린 시절 이야기 등 그의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분명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주인공은 매번 기회를 노린 끝에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틈을 타 드디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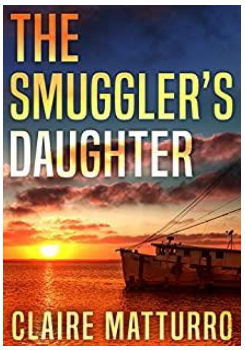
의 핸드폰을 손에 넣었고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용 기록을 보니 그는 거의 인스타그램 중독자였고 그가 관심 있는 주제는 과학에서 정치, 비즈니스,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업로드 한 사진 중에는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제이콥 로스 차일드와 함께 버락 오바마의 의사 모임에 관한 사진도 있었는데 그들 중 한 팔이 어색한 각도로 튀어나와 총을 겨누고 있는 조작된 사진이었다. 그는 심지어 얼마나 현재 정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한 글들을 직접 올리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음모론자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의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였다. 그제서야 그녀는 펠릭스가 바람둥이가 아니라 음모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차피 그와는 조금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별하기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그녀는 펠릭스에게 잠시 숨을 돌릴 겸 워싱턴에서 열린 '여성들의 행진 (women's march)'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워싱턴에서 다양한 여자들을 만났다. 그곳 여자들 역시 하나 같이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실망했다는 이야기와 남자들이 허영에 젖어있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서조차 위로를 얻지 못했다. 그 여성들이 가진 경직된 페미니즘과 가식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로부터 벗어나 오랜 친구인 제레미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며칠 후 펠릭스의 어머니 수잔으로부터 그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 후 펠릭스가 이용했던 다른 소셜미디어들을 발견했고 그가 가진 재능이나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에 대해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뉴욕에 살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예전에 한 번 여행 해본 적이 있었던 베를린으로 떠났다. 하지만 관료주의까지 강한 그 도시는 기대와는 달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

FAKE ACCOUNT 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형식의 자아 형성 과정, 인터넷 커뮤니티, 망상과 가스라이팅 등 오늘날의 연애에 관한 보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임에도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다.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와 재치 있는 표현 등을 통해 현대의 소통 방식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렌 오일 (Lauren Oyle)은 The New Yorker, The New York Times Magazine, London Review of Books, The Guardian, New York Magazine 등에 글을 기고 하고 있으며 현재는 브루클린과 베를린을 오가며 살고 있다.



제목 : THE SMUGGLER'S DAUGHTER

가제 : 발드포인트의 잃어버린 시간들

저자 : Claire Matturro

출판사: Red Adept Publishing, LLC

발행일: 2020년 7월 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최고의 소설가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울림이 있는 촘촘한 줄거리, 잊을 수 없는 등장인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포가 가득한 지난 몇 년 간 읽은 책 중 최고의 책."- 『Edgar and Shamus』의 저자, 제임스 W. 홀**

*** "소금기 묻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걸프 해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손에서 결코 내려 놓을 수 없는 중독성 있는 스릴러." - 베스트셀러 『Bocephus Haynes』의 저자, 로버트 배일리**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던 형사 레이 슬래버슨은 지난 24 시간만에만 두 명의 변호사가 살해되고 연이어 또 다른 살인 사건의 소식을 듣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레이는 이 죽음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약혼자인 케이트 가르시아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은 두 변호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사서로 일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한참동안 읽다 갔던 것이다. 5 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케이트는 이 살인 사건의 이면과 가족의 과거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1992 년, 카터 러셀은 환경 운동가로 지역 부동산 변호사인 앨튼 위버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시작된 인산염 채굴 사업으로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인산염 채굴은 마을을 환경 재앙으로 빠트린 원흉이었고 이 때문에 그는 할아버지의 농장이 폐허가 되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채굴 중 발생하는 독성 물질 때문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채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앨튼을 만나러 가던 카터는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웬 트럭이 나타나 고의적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 두었던 총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직후 곧바로 차 밖으로 나와 숲 속으로 달렸다. 하지만 얼마가지 못해 곧 바닥에 쓰러졌고 소총을 들고 온 남자가 자신이 뱀에 물리는 것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뱀의 머리를 쏜 후 유유히 사라졌다.

그 시각, 레이 슬래버슨 형사는 케이트에게 프로포즈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료 루크의 다급한 전화에 사건 현장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 레이는 현장에서 변호사 앨튼 위버가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사건 현장에는 전혀 격투의 흔적이나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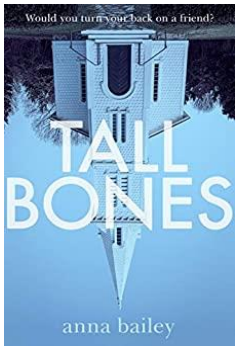
레이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고 케이트는 레이 옆에서 신문을 보며 인산염 채굴 회사가 또 다른 근처 마을에서 채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민에 빠졌다.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곧바로 근처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케이트는 신문에서 앨튼의 기사를 읽은 후 레이에게 그가 죽기 전 날 자신이 일하는 도서관에 와서 지난 신문 기록들을 찾아보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레이는 그게 어떤 기사인지 물었으나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또 다른 변호사인 와이먼 그린스트리트는 환경에 관한 법률적 사안이 앞으로 수익이 될 만하다고 생각해 개략적인 내용만 급하게 훑고 스스로를 환경 문제 전문 변호사로 칭하며 대충 일을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챙기려고 했으나 사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출근하기 위해 차고로 가다가 허무하게도 뒤에서 덮친 이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처음 레이는 연이어 발생한 이 세 사건들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케이트는 어느 일요일, 앨튼 변호사가 찾아보고 있었던 기사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앨튼이 1972 년 탤러해시의 발드 포인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한 어부가 이미 부패가 진행된 한 십대 소녀와 젊은 남자의 시신을 발견한 기사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소녀는 도망가던 중 총을 맞은 것이었고 젊은 남자는 가까이에 있던 누군가가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사망한 것이었다. 비록 경찰은 별다른 단서나 용의자도 찾지 못했지만 주변 해안에서 버려진 마리화나 뭉치들을 발견했다. 케이트의 눈에 가장 띈 것은 그 주변 마을에서 멕시코나 카리브해를 통해 몰래 가져온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마약 밀수업자들을 만나 살해당한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결국엔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레이는 와이먼의 용의자로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모든 고객을 조사했고 드디어 케이트에게 청혼했지만 케이트는 그가 그녀의 가족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면 자신을 버릴까 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케이트의 아버지가 오래 전 바로 그 두 남녀가 살해된 지역에서 마약 밀매를 했었기 때문이다. 케이트는 그와의 관계를 지키는 대신 관심을 돌려 환경 문제에 집중했다. 그리고 관련 기업 임원인 모건 맥케이을 직접 만났다. 하지만 그는 케이트를 유혹하며 환경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막으려 했다. 케이트는 아버지로부터 1972 년 살인 사건에 대해 당시 그곳 인근에 살았던 '바비'라는 자가 단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 시절 그와 가까이 지냈던 친구 니키를 찾아나섰다. 그리고 누군가 발드 포인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될 위협에 놓인 한 여자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벌어지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클레어 마투로 (Claire Matturro)는 앨라배마의 저널리스트이자 플로리다의 변호사였으며 대학에서 법률을 강의한 바 있다. 저작으로는 Best First Mystery, Barry Award 후보였던 『Skinny-Dipping』과 Georgia Writer of the Year Award 수상작인 『Wildcat Wine』, Romantic Times 'Award for Most Humorous Mystery 수상작 『Sweetheart Deal』등이 있다.

제목 : TALL BONES
가제 : 사라진 소녀
저자 : Anna Bailey
출판사: Transworld Digital
발행일: 2022년 4월 8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한 소녀의 실종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과 한 폐쇄적인 공동체의 어두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

열 일곱 살 소녀 아비가일 블레이크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엠마 알바레즈는 모든 십대들이 그렇듯 자신들의 젊음과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비가일이 갑작스럽게 실종되자 엠마는 사건 당일 날 밤 열린 파티에 아비가일을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곧 아비가일의 가족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두운 비밀과 오랜 분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TALL BONES 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 한 소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사랑과 증오, 정체성과 소속감, 맹목적인 신앙이 가져온 분노와 폭력, 폐쇄적인 종교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모닥불 파티가 열렸던 그날 밤, 엠마는 아비가일에게 먼저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말했다. 아비가일이 말리긴 했지만 엠마는 그녀와 달리 두꺼운 허벅지에 키도 작았고 스페인 혈통인 아버지 때문에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괴롭힘의 대상이 되곤 했었다. 때문에 아비가일을 포함해 들떠 있는 다른 여자 아이들처럼 누군가 데이트 신청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좀 찝찝하긴 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던 엠마는 자리를 나서던 중 모닥불 반대편에서 어쩐지 사악한 눈빛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낯선 젊은 청년을 보았다. 엠마는 불길한 기분에 다시 그를 찾아봤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엠마는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습관처럼 100 년 전 불에 타 시커멓게 탄 채 버려진 윈슬로 하우스를 무심코 보았다. 그리고 우연히 그 집의 낡은 창틀 구석에서 손전등 빛 같은 무언가가 반짝이다가 급격히 흔들리더니 사라진 것을 목격했다. 엠마는 그 때만 해도 내일 아침 아비가일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날 밤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이며 교회에서 그녀를 만나 그 날 오후 그녀의 머리카락을 염색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아비가일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미국 전역에는 그녀를 찾는 실종 전단지가 붙게 되었다. 그녀가 실종된 후 엠마는 학교에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모두 아비가일이 파티 장소를 기웃거리던 집시 청년과 달아났다는 둥 코요테들에게 잡아 먹혔다는 둥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렸고 이 모든 것이 엠마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비가일을 홀로 그곳에

두고 먼저 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떠들어댔다. 결국 그녀는 학교를 가는 대신 근처 가게에 술을 사러 갔다. 가게 주인은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눈물로 화장이 번진 데다 미성년자라서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엠마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말했다. 엠마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 그가 모닥불 파티 장소에 있었던 그 수상한 '집시 청년 (루마니아인을 부르는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곧 그와 친해졌다.

한편 딸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되어갈 무렵 아비가일의 어머니 돌리는 전날 아버지 사무엘에게 맞아 눈에 멍이든 열두 살짜리 막내 아들 주드의 얼굴에 열심히 컨실러를 바르고 있었다. 주드는 이미 사무엘이 계단에 던져 버리는 바람에 막대기에 의지해 걷게 된 아이였다. 돌리는 주일날 교인들이 주드를 두고 수군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그 멍을 가리는데 주력했다. 사실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폭력의 그림자가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딸이었다. 엄한 집안 분위기로 아비가일의 오빠 '노아'는 스무 살이 넘도록 대학도 가지 못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 본 적도 없었다. 그는 지난 여름 아비가일과 강에 갔다가 여동생의 성장한 몸을 힐끗 보았고 이로 인해 다투게 되었는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비가일을 때려 강속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었다. 하지만 노아는 가족을 이어주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듯 이 불행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후 마을 보안관 게인즈는 아비가일이 실종되던 날 숲 속 헌터 매독스의 사유지에서 총이 발사된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조사 중이었다. 그는 조사를 위해 엠마 역시 찾아왔고 엠마의 엄마 멜리사는 이상하게도 그를 불편해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아비가일과 게인즈가 수상한 신체적 접촉을 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곧 엠마는 자신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아비가일이 헌터의 집에서 자주 파티를 벌였고 마약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고 목사 루이스는 주일 설교 시간에 현재 이 마을에서 마약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시 청년 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를 전달했다. 며칠 후 게인즈는 그 집시 청년 랫이 살고 있는 밴으로 갔고 그가 엠마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곤 랫이 총을 소유하고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를 체포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아비가일은 정말 죽은 것일까? 한 소녀의 실종으로 마을의 어둠이 점차 드러나면서 펼쳐지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안나 베일리 (Anna Bailey)는 Bath Spa University 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했고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콜로라도로 이주하여 대신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콜로라도의 한 종교적인 가정 출신의 남자와 결혼해 살다가 2018 년에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와 Curtis Brown Creative 소설 쓰기 과정에 등록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다.

제목 : KINGFOUNTAIN SERIES 1, 2

가제 : 킹파운틴 시리즈 1, 2권 (총 여섯 권 시리즈)

저자 : Jeff Wheeler

출판사: 47North

장르 : 판타지

***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1,2 권 모두 밀리언 셀러 기록, 아마존 독자 서평 4,245 개, 평균 별점 4.5 기록, TV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

*** 독일, 헝가리, 러시아, 중국, 스페인, 터키 판권 계약 완료**

1권: THE QUEEN'S POISONER (여왕 독살자) / 출간일: 2016년 4월 1일, 분량: 336페이지

오웬 키스카돈은 웨스트 마치에 있는 타툰 홀의 통치자인 키스카돈 영주와 키스카돈 부인의 여덟 살 난 막내 아들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은 그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에게 작별인사를 건네던 그 순간 오웬은 갑자기 눈을 떴다. 비범한 기운을 가진 그의 머리카락에는 흰색 줄무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연약한 생명이라는 암시이거나 혹은 '왕의 분수'의 축복을 타고 났다는 상징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분수의 축복을 받은 자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힘을 갖게 됐다.

오웬이 살고 있는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세번 왕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조카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낸 사람이었다. 세번 왕이 키스카돈의 부하들을 자신의 전투에 참여시키라는 명령에 불복종하자 그에 보복하는 뜻으로 그의 첫째 아들을 살해했고 포로로 막내 아들인 오웬마저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했다. 때문에 키스카돈은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오웬을 성으로 보냈다. 어린 오웬은 이런 사건들을 겪던 와중 자신의 집사가 미래에 오웬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의 요리사 리오나는 오웬에게 폐위된 여왕이 살고 있는 인근 성역 '왕의 분수'라는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오웬은 다행히도 잡히지 않고 폐위된 여왕을 만나기까지 성공하지만 바로 그 때 세번 왕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고 여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웬을 다시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 버렸다. 세번 왕은 '왕의 분수'의 축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간단한 손짓만으로도 누구든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성으로 돌아온 오웬은 자신이 태어날 때 참여했던 조산사 안카렛트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세번 왕 몰래 숨겨진 통로를 오가며 비밀의 탑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수년 동안 폐위된 여왕을 독살하기 위한 음모에 참여했었고 실수로 세번 왕의 아내와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독살한 장본인이었다. 안카렛트는 이제 오웬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오웬이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안카렛트는 세번 왕이 오웬을 분수의 축복을 받아 꿈을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엡시온 (스파이 집단)과 동

맹을 맺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중 스파이 단원 만치는 안카렛트와 오웬의 거짓 꿈 이야기를 지어내고 오웬은 그 내용을 토대로 세번 왕에게 자신의 예지몽에 대해 들려주었다. 오웬의 꿈이 모두 현실이 되자 세번 왕은 오웬의 능력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다. 한편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모티머 (별명은 에비)'라는 어린 소녀는 언젠가 오웬과 결혼하기 위해 성에 도착했다. 오웬은 처음엔 그녀를 시끄럽고 성가신 존재로 여겼지만 점점 그녀가 가진 의리와 결단력에 반했고 에비 덕분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오웬은 세번 왕과 그의 충신들, 군대와 함께 브리스톤으로 여정을 떠나게 되면서 에비와 헤어지게 되고 그녀의 머리끈을 부적 삼아 두려울 때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힘을 얻었다. 오웬은 브리스톤에 있는 동안 자신이 몰랐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었고 상상력을 발휘해 위기에 처한 부모님을 구해내지만 왕은 그의 부모를 성밖으로 쫓아내버렸다. 마침내 오웬은 그 곳에서 자신이 진짜로 분수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된다. 안카렛트는 오웬이 이미 축복받은 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이다. 오웬은 여정을 마치고 다시 성에 돌아오게 되고 웨스트마치에 새로운 영주가 부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에비와 재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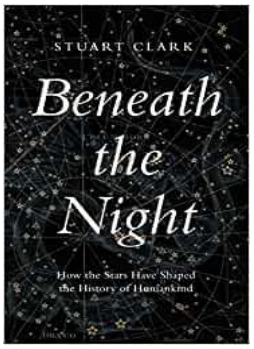
2권: THE THIEF'S DAUGHTER (도둑의 딸) / 출간일: 2016년 5월 31일, 분량: 368페이지

세월은 흘러 오웬과 에비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되었다. 이제 세번 왕의 강성한 왕국인 된 세레디지온 왕국에서 그들은 각자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오웬은 아주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으로 마법의 힘을 가지게 되었고 에비와는 지난 7 년간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이제 세번 왕이 그들의 결혼을 허락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번 왕은 두 사람이 결탁하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그들을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다. 결국 세번 왕은 에비를 작고 가난한 나라 아타비리온의 왕인 이아고 르웰린과 혼인시켰다. 한편 왕국은 음모로 인해 분열되고 세번 왕은 자신의 형 에레두르 왕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들을 대신해 형의 왕국까지 빼앗았다. 그리고 오웬은 자기가 가진 신비의 힘과 능력을 활용해 에레두르 왕의 아들 중 한명인 에릭이 뛰어난 전략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곧 오웬은 태어날 에릭의 아들이 바로 그 신화 속 '무시무시한 인물'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수의 음성을 들었다. 오웬은 왕의 명령에 따라 에릭을 잡아서 왕에게 넘겼지만 캐트린의 아들이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녀를 숨겨주었다. 자신의 사명이 곧 그 아이를 지켜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왕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해리포터와 왕좌의 게임을 사랑한 독자라면 누구든 빠져들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프 휠러 (Jeff Wheeler)는 인텔에서 일찍 은퇴한 후 전업 작가가 되었다. 저작으로는『The Covenant of Muirwood Trilogy』,『The Legends of Muirwood Trilogy,『the Whispers from Mirrowen Trilogy』 및 『Landmoor Series』가 있다.

NON-FICTION



제목 : BENEATH THE NIGHT

가제 : 밤하늘 아래서 - 별과 인류의 역사

저자 : Stuart Clark

출판사: Guardian Faber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역사, 과학

*** 중국 판권 계약**

***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류와 밤하늘의 관계를 살펴보는 역사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요즘 같은 때, 구름이 없는 한적한 밤, 가족과 함께 마스크를 끼고 밖으로 한 번 나가보라. 그리고는 가로등이나 빌딩이 없는, 밤 하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동시에 안전한 곳에 서서 바로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한동안 잠시 서 있어보라. 우리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삼 사십 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은 이 시간 동안 1 만배에서 1 백만 배 빛에 더 민감해지고, 이 때가 바로 별을 관찰하기 좋은 때가 된다. 대기 조건과 눈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천문학자인 저자 스튜어트 클라크의 말에 따르면 이 시간동안 우리는 3 천 개에서 많게는 4 천 개의 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별들을 바라보는 경험은 평온함과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의미한 존재인지 느끼도록 해준다. 저자 역시 평생 동안 밤하늘을 연구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별들을 보면 경외감과 흥분에 사로 잡힌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별을 이해하고 이 별들이 가진 광대한 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최근에 별들의 수나 본질이 별들이 가진 가장 매혹적인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별이 우리를 매혹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이 지상에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입장에서 별은 불멸의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셰익스피어와 갈릴레오, 콜럼버스, 잔 오브 아크, 클레오 파트라, 그리고 최초의 인류 역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별들을 바라보았고, 우리와 비슷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고 말한다. 우주 시대에서 석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모습들이 달라졌지만 밤 하늘 아래에 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광경은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동료 인간들이 본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밤하늘의 풍경은 우리 인류의 공동 유산이나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선사 시대의 동굴 예술과 고대 이집트의 황도 십이궁도에서 현대 위성 및 우주 탐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표현하고 탐색해 왔던, 전 세계에서 천년에 걸쳐 우리가 공동으로 갖고 있던

매혹의 대상, 바로 밤 하늘을 탐구한다. 별과 밤 하늘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탐구는 과학적 유산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인류가 지상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또한 수많은 시인, 예술가 및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했다.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을 투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던 동시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운명을 보여준 밤하늘과 인류 역사의 관계를 살펴보는 황홀한 역사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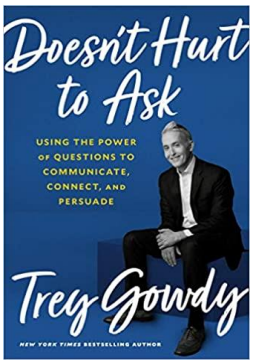
<목차>

1 장. 우주 시대에서 석기 시대로
2 장. 천국의 발명
3 장. 달력과 별자리
4 장. 동방 박사, 현인, 점성술사
5 장. 구체의 음악
6 장. 유역
7 장. 재앙과 타락한 마음
8 장. 자정의 죽음, 생각의 정오
9 장. 유토피아
10 장. 밤 하늘에 닿기 위해
11 장. 진정한 황홀

<저자 소개>

스튜어트 클라크 (Stuart Clark)는 Guardian, New Scientist, BBC Focus 및 기타 여러 출판물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천문학자이자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 전문 작가이다. 그는 BBC 라디오 3 의 'Music of the Spheres'시리즈의 작가이자 진행자이며 25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논픽션 및 픽션을 집필한 작가이다. 그는 Hertfordshire 대학의 방문 연구원, Royal Astronomical Society 의 연구원, 전 영국 과학 작가 협회의 부회장 및 유럽 우주국의 컨설턴트이다. 2020 년 9 월, 그는 University of Hertfordshire 에서 천문학 서비스 및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목 : DOESN'T HURT TO ASK
가제 : 질문, 성공적인 대화의 기술
저자 : Trey Gowdy
출판사: Bantam Dell Publishing Group
발행일: 2020년 8월 18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 일반



*** 전 의원이자 전직 검사인 저자가 법정과 의회 회의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과 설득의 기술을 발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
***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의 중요성,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 - 베스트셀러 『The Book of Virtues』의 작가, 윌리엄 J. 베넷**

설득과 논쟁, 질문 행위는 법정이나 의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같이 갈등과 분열이 우리의 일상을 침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설득과 조율의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에서 가족과는 물론, 나와 마주 앉아 있는 고객, 상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과의 설득, 논쟁 과정을 함께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의무를 떠 맡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 세상 어떤 곳 보다 더 첨예한 설전과 갈등과 설득을 반복하는 현장인 법정과 의회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바 있는 저자 트레이 가우디는 뛰어난 설득자들은 자신이 말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질문을 하는 행위는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최적의 전제 조건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때에 맞게 질문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나와 가까워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살면서 논쟁하고 설득하는 기술을 가장 깊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의 순간들을 되돌아본다. 그는 첫 번째 살인 재판에서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던 일화와, 형사 사법 개혁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바꾼 결정적인 대화, 제임스 코미와 힐러리 클린턴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법과 정치 분야에서 완성시킨 이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는 우리가 스스로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설득해야 할 대상을 이해하며 질문의 기술, 경청의 기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물론 변호사도 아니고 국회 의원도 아니지만 살다 보면 상사나 동료에게 내 의견을 피력해 기회를 잡아야 할 때도 있고 대의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설득해야만 하거나 심지어는 자녀에게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인지 알려줘야 할 때도 있다. 이 책은 바로 일상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시간에 효과적으로 설득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과 더

나아가 더 나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알려주는 책이다.

<목차>

서론: 법정에서 의회까지

1 부. 입을 열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

1 장.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유형의 질문들이 있다.

2 장. 설득을 위한 미묘한 기술

3 장. 목표를 알고, 사실을 알고, 자신을 알아라!

4 장. 배심원에 대해 숙지하라

5 장. 증거의 부담은 푸딩 안에 있다

6 장. 가짜 진정성을 배우고 나면 이제 당신이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2 부. 설득을 위한 행동 (기술)

(이하 생략, 총 3부, 1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트레이 가우디 (Trey Gowdy) 는 거의 20 년 동안 형사 사법 제도를 몸소 체험한 바 있는 전직 주 및 연방 검사이다. 2010 년에 그는 의회에 선출되었고,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선택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를 마친 후 그는 정치를 그만두고 사법 업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한 New York Times 베스트셀러 『Unified』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제목 : THE DIRTY TRUTH
가제 : 더러운 진실 - 쓰레기를 둘러싼, 쓰레기보다 더러운 진실
저자 : Oliver Franklin-Wallis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22년 봄
분량 : 약 320 페이지
장르 : 환경

*** 인간이 남긴 쓰레기들과 위험한 폐기물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검은 산업의 진실을 고발하고 쓰레기와 인간의 미래에 대해 탐구하는 책**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더불어 쓰레기 난 속에서 살고 있다. 빨대와 병,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포장재, 수십억 개에 달하는 아이들의 장난감, 화석 연료로 만든 장신구 등, 세상은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현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자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매년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6 년에 인류는 20 억 1 천만 톤의 고형 폐기물을 생산했고, 2050 년에 이르면 그 숫자는 무려 34 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연간 2 억 2 천 3 백만 톤, 즉 1 인당 하루 1.1kg의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인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인당 2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며, 낭비와 소비에 관한 한 우리는 대부분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를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더 불편한 진실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폐기물 산업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약 3000 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업은 어느 날, 우리가 버린 쓰레기에서 이익을 얻기로 결심했다. 이는 일명 보이지 않는 산업이며, 우리 모두가 잠든 밤에 트럭이 오가고 골판지로 만든 울타리 너머에 숨겨진 쓰레기들을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분류 기계 안에 숨겨져 있다. 이 기업은 뉴욕의 마피아 조직과 이탈리아의 '엔드랑헤타'라는 조직에서부터 시작해 1980 년대와 90 년대에 불법적으로 핵 폐기물을 밀수해 아프리카 해안에 버렸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은 바로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폐기물을 마음껏 방출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2018년 중국의 새해 명절, 중국이 쓰레기를 들여오는 관문을 닫아버리자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세계에서 온 폐기물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았고 태국이나 인도,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같은 세계에서 폐기물 관리가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인근 국가들에 매립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과 생태계는 가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 책에서 저자 올리버 프랭클린 월리스는 우리를 이 쓰레기가 이동하는 그 여정을 소개할 것이다. 그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가서 플라스틱과 전자 폐기물들이 모두 어디로 향하는지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간이 배출한 오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시도를 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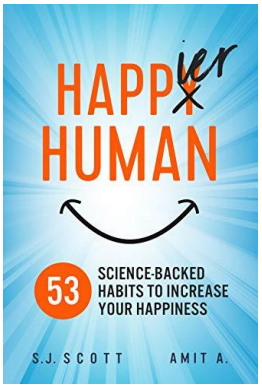
그 결과 어떻게 도시가 재편되었고 강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현대 문명을 발전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는 핵 폐기물 매장이 곧 포스트 휴먼 건축을 개발하는 것인 동시에 지난한 시간에 걸쳐 엄청난 고민 과정이 필요한 일임을 보여줄 것이며 쓰레기 및 위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과 최첨단 쓰레기 분류 로봇 및 새로운 산업 모델과 더불어 구식 산업 모델을 수용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쓰레기와 관련된 불편하고 추악한 진실을 담담히 마주할 것과 더 나은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 쓰레기를 분류하는 층
1부 : 더러운
1장. 쓰레기의 도시
2장. 승리를 위해 스크랩을 저장하라!
3장. 세계의 쓰레기통
2부 : 역겨운
4장. 콜레라 치료
5징. 물이 부족한 도시
6장. 모든 것의 1/3
3 부 : 독성
7장. 유출
8장. 아이폰들의 묘지
9장. 거인이 죽는 곳
(이하 생략, 총 4부 1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올리버 프랭클린 월리스(Oliver Franklin-Wallis)는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이다. 그의 글은 WIRED (기고 편집자), Guardian, New York Times, The Economist, The Times Magazine, The Sunday Times Magazine, British GQ, Men's Health 및 기타 여러 출판물에 실린바 있다. 2017 년 그는 British Society Of Magazine Editors에서 'Print Writer Of The Year' '로 선정되었다. 『The Dirty Truth』는 그의 첫 번째 책이다.



제목 : HAPPIER HUMAN
가제 : 행복 습관
- 당신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35가지 행복 습관
저자 : S. J. Scott
출판사: Oldtown Publishing LLC
발행일: 2019년 1월 27일
분량 : 241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행복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53가지 습관을 통해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누구나 행복한 삶을 꾼다. 길을 가다 아무나 잡고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물으면 십중팔구 다들 행복해지고 싶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행복한 삶'이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이다. 게다가 행복은 '내일은 5단계 정도로만 행복해야지'라고 정확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있는 그 때에는 미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모르고 지나가기 십상이다. 아마 일 년 정도 지나서 되돌아보고 나서야 그 순간들이나 경험이 놀라운 사간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우리는 한번도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제때 느껴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행복은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전략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말한다. 그 중 첫 째는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것', 둘째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요소들을 없애거나 그런 행동 빈도를 줄이는 것', 셋째는 '위와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몸에 익힐 것'이다. **이어 저자는 철저한 연구를 통해 증명된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아무리 바쁜 생활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라도 바로 삶이라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습관들을 만드는 계획표까지 제공한다.** 다음은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핵심 사항들이다.

1. 성공적인 삶에서 행복이 맡고 있는 역할 (힌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2. 우리의 감정 중 어떤 것이 망가졌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3.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해야 하는 5 가지 기본 요구 사항
4.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한 삶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8 가지 이유
5. "행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식별하고 사용하는 방법
6. 적응이 어떻게 당신의 행복한 감정을 둔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경향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7. 80/20 규칙의 실제 의미 및 사용 방법
8. 나의 현재 행복 지수를 테스트하는 도구
9. 다른 사람, 나 자신과 함께 행복을 찾는 방법
10. 나쁜 습관을 완전히 없애는 비결
11. 삶의 불행을 즉시 제거하기 위한 지능적 접근 방식들
12.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53 가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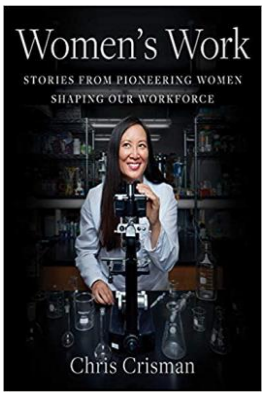
이제는 너무나 흔한 단어가 되어버린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능동적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목차>

1부: 당신의 행복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불행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8가지 이유들
나의 행복지수를 측정해보는 2가지 도구들
이 책의 구성 방식
2부: 행복 지수를 높이는 '중요 지렛대들'
1장. 80/20 전략을 사용해 행복에 집중하는 방법을 사용하라
2장. 나의 삶에서 불행한 요소들을 빼내라
3장. 목적을 가지고 살아
4장.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5장.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6장. 바깥으로 나가라
7장. 밤에는 푹 쉬어라
(총 6부 5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S.J. 스캇 (S.J. Scott)은 인기 도서 Habit Stacking을 포함하여 여러 자기계발 전문 서적을 집필한 바 있다. 그는 주로 건강, 피트니스, 업무 및 개인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일일 행동 계획을 제공하는 책들을 쓰고 있다. 그는 다른 자기계발서들과 달리 개인이 먼저 행동을 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책 읽기와 운동에 집중하며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제목 : WOMEN'S WORK

가제 : 나는 내 일을 사랑합니다

-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당찬 여성들의 목소리

저자 : Chris Crisman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20년 3월 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페미니즘, 사진

***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진 작가인 저자 크리스 크리스먼은 오랫동안 금녀의 구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닦아온 여성들에 관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포춘」**

*** "남성들이 지배해온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독자들은 다양하고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북리스트」**

요즘 어린 소녀들은 일단 어른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사의 중역으로, 어떤 분야의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남다른 고충과 문제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면밀히 논의된 바가 없다. 세계적인 유명인사들과 기업들을 상대로 사진 촬영 작업을 해 온 베테랑 사진 작가인 저자 크리스 크리스먼은 **흔히 '금녀의 구역'이라고 불리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직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 여성들의 인물 사진과 여성으로서 남성들의 세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인터뷰를 이 책에 실었다.** 그들은 언제나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의 대상이 되었고 때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짓누르고자 하는 조직 속에서 엄청난 고충을 겪기도 했던 이들이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사진들 속 등장하는 여성들은 소방관, 교도관, 말 사육사, 파일럿, 금 채굴 작업자, 농구 코치, 굴 양식인, 대통령 전기 작가, 화학 공학자등 수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외에도 어린 시절 소박하게 작은 빵집을 하나 운영하길 원했던 두 자매가 하루에 2 만 5 천 개 이상의 컵 케이크를 굽고 전국에 300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제빵 기업인이 된 성공 이야기와 건축가 윤미진씨의 이야기와 더불어 정육점주인, 대장장이, 양봉가, 도시 정원사, 구글 부사장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여성인 동시에 이민자이자 소수자이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아무 연줄도, 특출 난 배경도 없이 여성들이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직종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낸 사람들이다.** 이 여성들은 다들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조언은 매우 일관적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가 그동안 얼마나 진보해 왔는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또 얼마나 남아 있는 보여주는 큰 그림이자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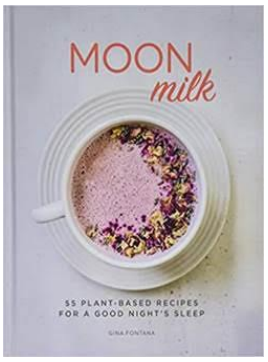
하길 바라는 미래 세대의 여성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사진들과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여성 직업인들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목차>

민디 가브리엘, 소방관
인드라 누이 전 PepsiCo 회장 겸 CEO
칼리아 브라스웰, INTech Camp for Girls 설립자
하이디, 르네, 스턴트 우먼
도리스 키언스 굳윈, 대통령 전문 역사가
카렌 크리스먼, 반려견 미용사, 중소기업 소유주
코니 창, 화학 및 생물학 엔지니어
팻 서미트, 수상 경력을 가진 농구 코치
헤더 메롤드 톰슨, 정육점 및 Primal Supply Meats 설립자
안젤라 덕워스, 심리학자 및 작가
(이하 생략, 총 60 여명의 여성들의 이야기 수록)

<저자 소개>

크리스 크리스먼 (Chris Crisman)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인물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이다. 그는 시고니 위버, 제인 구달, 엘 고어 리처드 브랜슨등과 작업한 바 있으며 그의 기업 고객들 중에는 파나소닉, 페덱스, 코카콜라 등이 있다.



제목 : MOON MILK
가제 : 문 밀크 - 숙면을 도와주는 식물성 레시피 55가지
저자 : Gina Fontana
출판사: Sterling Ethos
발행일: 2019년 11월 19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건강

*** 고대 아유르베다 의술 (식이 요법•약재 사용•호흡 요법을 조합한 힌두 전통 의술)을 활용한 숙면과 건강을 위한 식물 기반 제료를 활용한 레시피북**

충분히 잘 자는 것이 우리 건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다들 잘 알고 있다.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만큼 잘 자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숙면은 우리 신체 내 기관들이 잘 작동하도록 돕고 기분 상태와 기억력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충분 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거나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고혈당 및 비만과 같은 건강 문제를 갖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영양은 우리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방을 시원하고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샤워를 하거나 아로마 테라피 디퓨저를 사용하고 잠자리에 휴대 전화나 컴퓨터를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습관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야식을 먹곤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을 숙면을 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 있지 않고 체중 증가, 과식하는 습관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불면증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건 요리, 식물 기반 레시피 개발 전문가인 저자는 잠자리에 '문 밀크'를 마시면 몸의 긴장을 풀고 몸에게 자연스럽게 수면을 준비할 때임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레시피들은 모두 자연적으로 단맛을 내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건강한 디저트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저자는 매일의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그녀는 과일, 채소, 통 곡물, 양질의 단백질 (식물성 원료) 및 좋은 지방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및 씨앗)이 포함된 식사와 설탕이 너무 많이 포함된 음식이나 가공 식품은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조언한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모든 음식들이 우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는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트와 함께 불면증이제 이 아름다운 책은 불면증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레시피들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에 대한 알러지를 갖고 있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역시 편안한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재료들만 엄선했다. 또한 우유나 기타 유제품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우유를 사용했다. 건강한 일상과 숙면을 위한 다양한 레시피들이 수록된 책이다.

<목차>

서문

1 장. 지나를 만나 보셔요.

2 장. 아유르베다 의술(식이 요법·약재 사용·호흡 요법을 조합한 힌두 전통 의술)

3 장. 수면과 영양

4 장. 식물성 우유

문 밀크 만들기

5 장. 엘더베리 로즈

6 장. 아쉬와간다

7 장. 블루 베리 라벤더

8 장. 케이크 반죽

9 장. 활성탄

10 장. 크랜베리 오렌지

11 장. 포도

12 장. 스피루리나

13 장. 바나나 크림 파이

14 장. 카모마일

15 장. 페퍼민트

16 장. 비트 루트 로즈

(이하 생략, 총 60 여 개의 레시피로 구성)

<저자 소개>

지나 폰타나 (Gina Fontana)는 30 분 이내에 준비 할 수있는 맛있고 쉬운 글루텐 프리, 비건 채식 요리법에 초점을 맞춘 인기 있는 음식 블로그 Healthy Little Vittles 의 운영자이자 작가이다. 그녀는 Simply Gluten-Free Magazine 의 표지에 등장한 바 있으며 유명 블로그 Lauren Conrad 에 소개 된 바 있다.